

2025 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
에베소서

메시지 11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과
새 사람을 입음

성경: 엡 4:17-24, 골 3:10-11

I.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.

- A. 에베소서 4 장 17 절부터 19 절까지는 20 절에서 “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.”라는 바울의 말의 어두운 배경이다.
- B.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, 본이시다 — 요 13:15, 벤전 2:21.
 - 1.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,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(마 11:29).
 - 2. 33 년 반 동안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은 본, 틀, 모형을 세우셨다.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문제이다.
 - 3.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틀 안에 넣으셨다 — 엡 4:21, 24.
 - 4.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도록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.
 - a. 로마서 8 장 29 절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b.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같은 틀 안에 넣어지는 것이다.
 - c. 만아들은 본이시고 만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이 본과 같은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다.
 - 5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.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‘같은 형상’이 되는 것이다 — 롬 8:29.
- C.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— 엡 4:21.
 - 1. 타락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에는 공허함이 있다.
 - 2.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진리, 곧 실재가 있다 — 요 8:32.
 - 3.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.
 - 4.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,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. 이것이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의 의미이다.
 - 5.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,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를 따라 예수님께 배운다 — 요 1:14, 17, 14:6, 17, 15:26, 16:13.

II. “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” — 엡 4:23.

- A.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긴요한 절인 에베소서 4 장 23 절에 따르면,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.
- B. 거듭난 영은 새로워진 영이다. 이 새로워진 영이 강하게 되어 우리 혼의 각 부분에 침투하고 혼의 각 부분을 정복하며 차지해야 한다 — 엡 3:16-17.
- C.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, 이 두 영은 함께 연합되어 생각의 영을 이룬다 — 딤후 4:22, 고전 6:17.

1.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실 때,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된다.
2.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연합된 영에 의해서이다.
- D.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다 — 롬 12:2.
- E.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더 새로워질 때 신성한 본질을 가진 새사람이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— 엡 4:23.
 1. 우리 속에서의 이러한 확산은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다.
 2.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혼 안에서 더 이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.
- F.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— 엡 4:23.

III. “새사람,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” — 엡 4:24.

- A. 4 장 22 절과 24 절에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보여 준다.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다.
- B.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.
- C. 침례를 받았을 때,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— 롬 6:4 하.
- D. 새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— 엡 4:24.
 1. 새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몸이다 — 엡 2:15-16.
 2. 새사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다.
 3. 이 단체적인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, 모든 것 안에 계신다. 즉 그분은 모든 이이시고, 모든 이 안에 계신다 — 골 3:10-11.
- E. 옛사람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(창 1:26-27),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없었다. 그러나 새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는다(골 3:10).
- F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, 새사람인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— 요 14:6.
- G. 이 단체적인 새사람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.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실재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실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.
- H.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. 한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독실한 것이다.
- I. 에베소서 4 장 24 절에서 ‘실재’ 앞에 나오는 정관사는 강조를 나타낸다.
 1. 옛사람과 관련된 4 장 22 절의 ‘그 속이는 것’이 인격화되어 사탄을 가리키듯, 새사람과 관련된 이 절의 ‘그 실재’는 인격화되어 하나님을 가리킨다.
 2.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이고, 실재는 바로 하나님이다.
 3. 이 실재는 에베소서 4 장 21 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.
 4. 실재의 의와 거룩함은 예수님의 생활에서 계속 나타났다.
 5. 새사람은 바로 이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으며, 그 실재는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다.